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로써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신령한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황금률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그런데 요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 모임을 핑계 삼아 예배에 늦거나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슬프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

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사 1:11-12). 부서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히 예배 시간과 15분 전에는 착석하여 온전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15분 전 준비에 예외는 절대로 없습니다. 적당히 시간에 맞추어 또는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헛된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사 51:17).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집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실제로 존재하는 몸이며 사실이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의심이 있었다(요 20:25). 과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분명하게 죽었다. 온 예루살렘이 알고 제자들이 인정한 것이다. 이제 웬말인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도 참석해 있는 모임의 장소에 그것도 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요 20:26). 잠금에서 살아서 봉해진 그들에게 실질적인 주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몸을 확인시키신다(요 20:27). 가장 의심 많은 도마는 명령을 듣고 일어났다. 분명하게 그의 손가락으로 확인한다. 손을 예수님의 얹으려고 발을 수가 있다. 이제 도마는 제자들 앞에서 선언한다(요 20:28). 분명한 사실이다. 기적이나 하늘의 표적만이 아니다. 성육신을 믿으며 천사의 탄생을 믿는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다. 죽음과 사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다(고전 15:20).

천사는 여자들에게 빈 무덤에서 명령한다(마 28:7).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움직일 수가 있었다. 마태복음은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를 경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마 28:9).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눅 24:39). 할렐루야! 이제 또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더 확실한 확신을 주신다(눅 24:42-43, 29-30). 베드로는 고넬료(이방인)의 집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행 10:40-41).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생선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잡을 수가 있었다(고전 6:13).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실제(physical, 육체적, 신체적)였다는 증거는 요한복음 20:17,22,27에 언급된다. 또한 그의 제자들이 인식한 것을 볼 때에 그의 몸이 생관(살아 계셨을) 때의 몸과 죽기 전의 몸은 같았음이 증명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형태를 보여 주신다. 영광의 형체를 가지신 몸이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가졌지만 먹을

때실 때까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의 형태나 모양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자취를 감추실 수가 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이곳저곳으로 움직이시며 나타남을 볼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을 보여 준다(요 20:19). 더욱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부활의 몸을 더욱 놀라게 과시해 준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몸이요 또한 신령한 몸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여 주셨던 영광스러운 속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올 장엄한 환경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지금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신비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몇몇 경우에만 나타나시었다. 이것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셨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전 15:5-8).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제시된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영광된 몸이 변했을까? 곧이 닳을까? 하는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합쳐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까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바울은 표현했다(딤후 6:16). 바울의 경험이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가 체험한 주님을 그리고 있다(계 1:12-18). 놀라운 모습이다(행 9:3).

예수님의 모습은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더 이상 입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승천 후에도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신다. 갈릴리의 500여 성도를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심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들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도 듣게 된다(행 1:11).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계 1:7). 다니엘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였다(단 7:13).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세상에 있는 죄인 된 인간들 앞에 계시 때에는 그의 참 영광을 의지적으로 나타내시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그의 영광의 몸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신비미여운 총이다(요일 1:1-2). 기적이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른 면도 포함하여 설명한다(요일 1:5). 참 빛으로 영원한 생명임을 증거하고 있다(요일 1:4, 9-10). 바울은 설명한다(빌 2:6-7, 10). 그는 지금도 영광스런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ELI THE HIGH PRIEST

(11) And the LORD said to Samuel, Behold, I am about to do a thing in Israel at which both ears of everyone who hears it will tingle. (12) In that day I will carry out against Eli all that I have spoken concerning his house, from beginning to end. (13) For I have told him that I am about to judge his house forever for the iniquity which he knew, because his sons brought a curse on themselves and he did not rebuke them. (14) And therefore I have sworn to the house of Eli that the iniquity of Eli's house shall not be atoned for by sacrifice or offering forever. (1 Samuel 3:11-14)

In today's Bible verses, Samuel received an ear-tingling message of doom directly from God concerning Eli and his family, and nervously delivered it to Eli without error. Eli was the high priest and judge of Israel, and Samuel was his apprentice. As such, God's voice should have come to Eli, but instead God used Samuel to prophesize His message of judgment. What kind of person was Eli that God's judgment came upon him?

Eli was a good man, and faithful priest. He earnestly loved and led Israel for forty years. He was a true servant of God. No one could point a finger at him concerning his priestly duties because he performed them with excellence. No one could complain about his ministry work because he was a true spiritual man. He was a generous and kind leader. He loved and raised Samuel to become a wonderful and powerful priest. He was respectable, a man who kne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and practiced it. He knew God, and talked directly with Him. He even taught Samuel how to talk with God, "Go lie down, and it shall be if He calls you, that you shall say,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1 Sam. 3:9).

Eli was also a man who followed God's will. After God spoke with Samuel, Eli asked about their conversation. Samuel explained everything exactly as God told him. It was an awful message, and therefore a very dangerous one to deliver. Samuel knew that Eli could easily have him killed, yet he withheld nothing from Eli. Surprisingly, Eli did not get angry with Samuel or God. He did not even complain. He humbly accepted God's will, telling Samuel,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seems good to Him" (1 Sam. 3:18).

Why did God punish Eli when he was not the one who rebelled against Him? His two sons profaned God's house through immoral activity, not him. He was a faithful religious leader. What did he do wrong? Eli did not do what he was supposed to do. His two sons were very bad. They were young, smart, and followed their own ways, not God's, "Now the sons of Eli were worthless men; they did not know the Lord" (1 Sam. 2:12); they "despised the offering of the Lord" (1 Sam. 2:17). He knew about his son's evil doings, "Now Eli was very old; and he heard all that his sons were doing to all Israel, and how they lay with the women who served at the doorway of the tent of meeting," (1 Sam 2:22) but he never took measures to correct the situation. He said to them, "'Why do you do such things, the evil things that I hear from all these people? No, my sons; for the report is not good which I hear the Lord's people circulating. If one man sins against another, God will mediate for him; but if a man sins against the Lord, who can intercede for him?' But they would not listen to the voice of their father, for the Lord desired to put them to death" (1 Sam. 2:23-25).

Eli did not fix his son's problems. He did not punish them, even though he had the power to do so. He was a high religious and governmental authority who could have easily put them in jail, but he did not. His neglect caused his sons to disrespect the word of God. Although his personal lifestyle may have been blameless, the fact that he failed to discipline his children brought God's extreme judgment upon him and his family.

Sadly, the same sort of thing is happening right now. There are church leaders with terrible family situations who are not addressing them. They are not fixing or correcting their bad kids because they are afraid of what others might think. They preach about God's love, kindness, and generosity in such a way as to prohibit any type of change. They do not handle others as sinners in need of repentance. They do not offer the cleaning solution to the sin problem. As Christians, we have to walk the narrow way. We cannot compromise with sin. Jesus did not ignore the sin in God's house; He cleaned it up (Jn. 2:15-16). Even though everybody was enjoying himself or herself, He did not care that he disrupted their comfort because He cared more for their souls. Eli was a spiritual man who deeply cared about the ark of God (1 Sam. 4:13), but he did not take care of his family's problems by doing what he was supposed to do, and his failure brought God's judgment.

When Israel went out to battle the Philistines, they lost. A messenger came from the battlefield and told Eli, "Israel has fled before the Philistines and there has also been a great slaughter among the people, and your two sons also, Hophni and Phinehas, are dead, and the ark of God has been taken" (1 Sam. 4:17). As soon as the messenger mentioned that the ark of God had been taken, "Eli fell off the seat backward beside the gate, and his neck was broken and he died, for he was old and heavy. Thus he judged Israel forty years" (1 Sam. 4:18). When his pregnant daughter-in-law from his son Phinehas heard the news that her husband, father-in-law, and brother-in-law were dead, she gave birth and named her son "Ichabod," which means the glory has departed from Israel (1 Sam. 4:21). What a terrible family situation! Eli should have taken his parental responsibility seriously. He did not pick-up his cross, but only lifted it.

Today's Christian parents are so weak in managing and disciplining their kids. They think ignoring or lightly confronting their children's sins is love, but it is not. When parents do not repent, when they do not practice their faith in all areas of their lives, the result is deadly. Eli had the righteousness, power, and authority to do something about his family's problems, but he did not and the consequences were fatal. Christians, please repent and pick-up your cross to follow Jesus. 

다음 주일 설교

대제사장 엘리

⁽¹⁾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²⁾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³⁾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⁴⁾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삼상 3:11-14)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집에 임종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뒤 한 마디도 빠짐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때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사무엘은 한낱 사중에 불과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에게 들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도대체 엘리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던 것일까요?

충성스런 제사장

엘리는 선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십 년 동안 열정을 다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며 지도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한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엘리는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사역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너그럽고 온유했습니다. 사무엘을 사랑으로 양육하여 마침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제사장으로 키워낸 것도 엘리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그것을 식별에 옮길 줄 아는 그는 분명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직접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입니다 하라..." (삼상 3:3).

순종의 제사장

엘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후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묻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아무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는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불평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삼상 3:18).

두 아들

엘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시는 것일까요? 부도덕한 행위로 하나님의 집을 욕되게 한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이지 그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충직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엘리는 자녀 교육에 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행실이 어지 나빴습니다. 그들은 절고 간행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평자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삼상 2:12). 게다가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삼상 2:17). 엘리는 두 아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매우 노였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화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삼상 2:22). 그러나 그는 자녀들의 악행을 바로 잡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타일렀을 뿐입니다. "...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노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 하는도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은 판결하시리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아비의 말을 듣지 아

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삼상 2:23-25). 엘리는 자식의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식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슬프게도 동일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아서 집안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자식들의 나쁜 행실을 바로잡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많고, 온유하며, 인자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나쁜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마땅히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할 해결책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죄를 용서해 버리셨나더료(요 15:1-16).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끽할 때조차도 주님은 주지 없이 그들의 평안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주님께는 그들의 영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묵음처럼 귀중히 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삼상 4:13). 그러나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책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전령이 와서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과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삼상 4:17).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하자마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 엘리와 자기 의외에서 자빠져 큰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벼루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삼상 4:18). 설상가상으로, 임신 중인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사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갑작스럽게 해산한 뒤 눈을 감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불"이라 지었는데 이는 영망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삼상 4:21). 이 얼마나 비극적인 가족사입니까! 엘리는 최선을 다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대해서만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식을 다루고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죄를 묵인하고 가깝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엘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력과 권위가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끔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 장로 칼럼 |

주님을 닮기 원하는 14교구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 15:5)



신상수 (14교구장)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물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있는 14교구는 광명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의 일부인 목동·아파트 지역으로 200세대 718명의 성도들로 6개 지역, 6개 남성 구역과 27개 구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구 식구들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는 말씀을 주께 성령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표어로 하여 심방과 전도, 단기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영성 훈련 강화와 결석 없는 교구 만드기에 온 교구 식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경험과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도의 별로는 교회 주변전도와 개인적으로는 내 집 근처와 나의 주변 일가 친척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1인 1명 전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6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정해 놓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힘써 모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교를 위해서 온 교구 식구들이 전력과 있습니다. 팀 구성은 6개 지역팀과 추가 2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5개 지역팀은 은혜 중에 사역을 마치고, 나머지 팀들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팀은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한 지체로 가지로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지지 않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나를 깨트리 헌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끼며 먼저 굿은 일을 찾아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4교구에 속한 온 식구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얀 권사님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의 마음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땅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구 식구들은 교구 모임,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동참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의 성령 충만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와 복음으로 하나 되

어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14교구가 되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순종하면!

16교구 6지역팀 선교후기

신교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선교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던 차에 소망부에서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선교를 가고 싶은 분들을 모두 가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들과 단 1명밖에 전도를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아버지의 자녀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어떠셨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고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 재물을 주셨고, 감격하며 울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부족한 나를 불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더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남은 생애를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 9월 말에 또 다른 선교지로 선교를 떠나려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망부 친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두 선교를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비롯해 건강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만 믿고 순종해서 나간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다녀온 한종복 성도,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종복 성도의 모습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기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권진실)



20일 새벽 3시, 집을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다. 올해 세 번째 가는 선교인 데도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조심스럽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가 궁금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바울을 택하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가득 채우사 자신을 부인하게 하였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목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느꼈다. 현지에 도착하여 첫날 정담을 했을 때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 하나가 없었다. 꼭 생명을 잃은 죽음의 도시 같은 암울한 느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했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가슴 저려 하는 영혼도 보았다.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가슴 저려 했는지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정순 권사)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팀원들을 향해 도전했다. 그러나 우리 팀원들 모두 함심하여 더욱 기도하였다. 새벽 기도에 더 열심히 참석하여 기도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진을 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원수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는 점점 담대해졌다. “죽으면 죽으리라!” 역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놀라웠다. 우리가 공안에게 전도지를 보여 주었더니 그들은 괜찮다고 하였다. “아멘!” 우리 모두 전도를 힘을 더하기 시작했다. 영접 기도는 물론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서 목청이 터져라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기 시작했다. 많아 보인 전도지도 며칠만에 다 소진되었고, 1:1 전도를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행숙 집사)



처음에 선교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은 곧 그런 나를 회개하게 하였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공안의 눈을 가리워 주신 덕택으로 우리는 아무런 거려짐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석목원에서 공원에서 또 마을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 우리는 물론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는 순간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개하였다. “정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을 때 정말 성령님은 임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홍숙 집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갑갑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몇 해 전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때 전해 들은 짧은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갑갑한 마음으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 주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비된 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며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동시에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곳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으나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곳이 없고 알려 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어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대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정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6살 된 어린 소녀가 혼자서 가정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참으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 속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풍성히 넘쳐길 기도하겠습니다.



한진숙 (집사, 1교구)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7월 25일(월) - 8월 2일(화)	대학부(20)	이기욱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2교구 추가2	한혜연
7월 25일(월) - 8월 3일(수)	13교구 1지역	임연수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6지역	최민석
7월 25일(월) - 8월 3일(수)	6교구 5지역	이세영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4교구 1지역	조홍진
7월 25일(월) - 8월 5일(금)	10교구 6지역	강호재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6교구 추가2	김병권
7월 25일(월) - 8월 2일(화)	청년(23)	최경호	7월 29일(금) - 8월 6일(토)	4교구 1지역	이상식
7월 26일(화) - 8월 3일(수)	6교구 1지역	박광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교구 2지역	이보신
7월 26일(화) - 8월 3일(수)	6교구 3지역	이병두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6교구 1지역	김상수
7월 26일(화) - 8월 3일(수)	대학부(20)	이복희	7월 29일(금) - 8월 6일(토)	11교구 4지역	박찬서
7월 26일(화) - 8월 3일(수)	5교구 3지역	박옥진	7월 29일(금) - 8월 6일(토)	외선부(2)	장병준
7월 26일(화) - 8월 4일(목)	9교구 7지역	김연태	7월 29일(금) - 8월 6일(토)	8교구 1지역	김철남
7월 26일(화) - 8월 4일(목)	7교구 5지역	전계식	7월 29일(금) - 8월 6일(토)	대학부(23)	여정호
7월 26일(화) - 8월 4일(목)	6교구 6지역	김현철	7월 29일(금) - 8월 6일(토)	청년(24)	장철환
7월 26일(화) - 8월 4일(목)	6교구 4지역	엄복삼	7월 30일(토) - 8월 6일(토)	청년(17)	김중선
7월 26일(화) - 8월 4일(목)	대학부(30)	조영구	7월 30일(토) - 8월 6일(토)	고등부(8)	홍준길
7월 26일(화) - 8월 4일(목)	17교구 2지역	유재훈	7월 30일(토) - 8월 6일(토)	대학부(31)	윤성민
7월 26일(화) - 8월 5일(금)	17교구 7지역	문경안	8월 1일(일) - 8월 6일(토)	고등부(11)	이양선
7월 27일(수) - 8월 3일(수)	애버(1)	안준오	8월 1일(일) - 8월 6일(토)	고등부(12)	정원근
7월 27일(수) - 8월 3일(수)	애버(2)	윤영범	8월 1일(일) - 8월 6일(토)	중등(24)	김민석
7월 27일(수) - 8월 4일(목)	17교구 3지역	이희열	8월 1일(일) - 8월 6일(토)	중등(25)	윤병식
7월 27일(수) - 8월 5일(금)	2교구 4지역	이영환	8월 1일(일) - 8월 6일(토)	중등(26)	김명성
7월 27일(수) - 8월 5일(금)	1교구 4지역	윤선찬	8월 1일(일) - 8월 6일(토)	중등(35)	노재경
7월 27일(수) - 8월 5일(금)	2교구 2지역	문홍우	8월 1일(일) - 8월 6일(토)	중등(36)	정현지
7월 27일(수) - 8월 5일(금)	6교구 8지역	안상식	8월 2일(월) - 8월 6일(토)	중등(11)	전진배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7지역	신상진	8월 2일(월) - 8월 6일(토)	중등(12)	전종욱
7월 28일(목) - 8월 5일(금)	4교구 11지역	안성길	8월 2일(월) - 8월 6일(토)	중등(13)	양한원
7월 28일(목) - 8월 5일(금)	18교구 2지역	김흥기			

변함 없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이번 사역을 하면서 내가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대학부터 캠퍼스 전도를 통해 한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창피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다닐 수 있었다. 참으로 은혜였다. 사역지에서의 '나'와, 한국의 거리에서의 '나'는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기도 후원자들의 기도가 뜨거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서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또는 관계가 멀어질까 봐 입을 열기가 어려웠다.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귀한 아들도 내어 주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택했던 것이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다. '나'라는 사람도 동일하다. 사역지에서의 '나'와 일상 생활에서의 '나'가 다를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주변 어딘가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내 입을 열어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전해야겠다.

김경남 (대학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중·고등부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8일(월) - 8월 13일(토)	중등2부(7)	이정태	8월 12일(금) - 8월 17일(수)	중등3부(7)	문홍우
8월 8일(월) - 8월 13일(토)	중등2부(8)	고진수	8월 12일(금) - 8월 17일(수)	중등3부(8)	양희민
8월 8일(월) - 8월 13일(토)	중등2부(9)	김기태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8일(월) - 8월 15일(토)	대학부(40)	이양호	8월 9일(화) - 8월 18일(목)	18교구 추가	진희래
8월 8일(월) - 8월 15일(토)	11교구 2지역	김철환	8월 10일(수) - 8월 19일(금)	17교구 5지역	송영준
8월 8일(월) - 8월 15일(토)	12교구 추가	윤운산	8월 11일(목) - 8월 19일(금)	2교구 추가	이영환
8월 8일(월) - 8월 15일(토)	11교구 5지역	박호준	8월 11일(목) - 8월 19일(금)	18교구 4지역	장택영
8월 8일(월) - 8월 17일(수)	18교구 5지역	이승현	8월 11일(목) - 8월 19일(금)	대학부(33)	김철명
8월 8일(월) - 8월 17일(수)	7교구 추가	박용기	8월 11일(목) - 8월 19일(금)	대학부(34)	박민호
8월 8일(월) - 8월 17일(수)	7교구 추가	윤수환	8월 11일(목) - 8월 19일(금)	대학부(38)	윤선열
8월 8일(월) - 8월 19일(금)	3교구 추가	김옥근	8월 12일(금) - 8월 18일(목)	청년(15)	강현석
8월 9일(화) - 8월 15일(토)	9교구 3지역	이성복	8월 12일(금) - 8월 20일(토)	4교구 8지역	박우현
8월 9일(화) - 8월 15일(토)	청년(14)	최희태	8월 13일(토) - 8월 19일(금)	청년(16)	정금수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1일(월) - 8월 8일(토)	대학부(22)	김규중	8월 3일(수) - 8월 10일(수)	고등부(6)	김동철
8월 1일(월) - 8월 8일(토)	대학부(31)	윤성민	8월 3일(수) - 8월 10일(수)	고등부(10)	윤진태
8월 1일(월) - 8월 9일(토)	8교구 8지역	남승윤	8월 3일(수) - 8월 10일(수)	고등부(13)	김영환
8월 1일(월) - 8월 9일(토)	대학부(32)	임성식	8월 3일(수) - 8월 12일(금)	5교구 1지역	김윤환
8월 1일(월) - 8월 10일(토)	1교구 6지역	김대중	8월 4일(목) - 8월 12일(금)	13교구 추가	장철규
8월 1일(월) - 8월 10일(토)	12교구 1지역	정영태	8월 4일(목) - 8월 12일(금)	16교구 7지역	김재호
8월 1일(월) - 8월 10일(토)	18교구 2지역	한준봉	8월 4일(목) - 8월 12일(금)	10교구 3지역	김영록
8월 2일(화) - 8월 10일(토)	11교구 추가	석영식	8월 4일(목) - 8월 13일(토)	대학부(21)	한현식
8월 2일(화) - 8월 10일(토)	9교구 1지역	동방영운	8월 4일(목) - 8월 13일(토)	4교구 9지역	이희우
8월 2일(화) - 8월 10일(토)	14교구 6지역	박종욱	8월 4일(목) - 8월 13일(토)	4교구 12지역	류기명
8월 2일(화) - 8월 11일(토)	3교구 4지역	김성호	8월 4일(목) - 8월 13일(토)	4교구 10지역	권오준
8월 2일(화) - 8월 11일(토)	3교구 5지역	이영재	8월 6일(토) - 8월 15일(토)	5교구 6지역	김필현
8월 2일(화) - 8월 11일(토)	외선부(3)	안석현			

*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막 9:29).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에 동역하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기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드디어 중증부 연합수련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중증 1부 단위 선교와 이미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중증 2,3부 단위 예배를 생각하여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였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우리 마음에 놀라건다는 기분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 때문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했다.

“하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 (제 13)이란 주제로 시작된 수련회는 여는 예배와 조별 말씀 공부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 영적인 식사, 그리고 뜨거운 부흥회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말씀 중에 ‘여러분! 만이 믿음은 신이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흘려졌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한 혼자만의 것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어야 얻을 수 있고, 그 기쁨도 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불안한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리며 믿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 세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가는 선교 지를 위해 기도했다. 이번 수련회는 간사를 앞둔 나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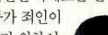
오지예 (중등 1부)



우리 모두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중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동부 연합수련회
에 참여했다. 해마다 하는 수련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더욱 설렘였다. 그러나 여는 예배로 시작된 ‘꽃 그 시로 일러나
너!’(눅 24:33)는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된 믿을 철저히 회개하였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심을 기뻐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역시 가장 큰 은혜는 부흥회 시간에 일어났다. 예수님이 개인인 삭개오를 만나
는 모습이었다. 나는 삭개오만 개인일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가 개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의 복을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서 "혹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복을 듣고 싶어
버린 자를 찾으러 나가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
는 십자가의 증인이자, 특별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
하라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김은우

김유웅 (중등 2부)



십자가에 묶여 있는 아이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험하니~”
여름 성경학교 이후 아이의 입가를 떠나지 않는 주재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 아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성경학교에 임했습니다.

첫째 날 주신 귀한 말씀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
생님들과 부모들에게 큰 도전

과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묶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저는 끝날까지 십자가에 묶어 있기를 소원하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친양을 하는 입술과 성경을 암송하며 구슬 맘을 흘리는 아이들! 순서 순서에 열중하는 모습에서 저게 매순간 이미 십자가에 매여 있어 앞으로의 삶 동안 세상 속에서 전혀 요동치 않을 아이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게 부모님 되자 세간으로 이들을 선전해 줄 필요있지만 그 순간 아이들은 세상과 구분된 십자가의 아들들로 무궁외아침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쉴 새 없이 중언부리는 아이의 찬양에 세상 속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렘춤, 십자가에 걸려 웃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많은 맘을 흘린 이들 간의 성경학교였지만 저와 아이들에게는 이 여름 가장 확실하고도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최현정(지혜 엄마/유치부)

나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

방학 첫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름 성경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높고도 싶고 더 자고 싶기도 했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아들이 걸친 신에다 모두 참여하고 난 뒤 저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만이 날 안에 했습니다. 첫째 날 새벽식 때에 저희 반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신 다음 제 발을 열침이 되어 주셨을 것을 열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의 발을 이처럼 자주 세우는 것을 상상되었고, 나도 이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둘째 날의 말씀 묵상 시간은 은혜가 더 넘었습니다.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모두 회개하였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 하는 다 한 번 되했습니다. 1월 2일 동안의 짧은 시간에 저는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날 위해 흘려 죽으심도 깊이 깨닫습니다.

일수정 (소녀부)



교회 탐방 75 어디야(대학부)

복음을 담은 그릇

글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글 쓰는 것도 어려워한다. 따라서 글을 쓰고 편집하는 어디야의 노고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소수 정예인 이들은 어디야를 통해서 멋지게, 화려하게라는 형식보다 '집적자, 예수 그리스도, 은총'이라는 신앙의 내용을 우선하여 복음을 담고 있었다.

어디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요 대학부 집회 소식과 대학부 지체들의 글을 실는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근, 편집국장)

복음이 필요한 곳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지체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국문)

편집부 이름이 어디야인데 무슨 뜻인가?

사무엘이 12장 25절 말씀인 "저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어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이심을 인함이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수경, 국문)

"여호와와 사람의 아들은 자의 의미인데, 신자가 나단을 솔로몬에게 준 별명입니다. 저의 편집부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 준, 국문)

주보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첫 쪽에는 집회 순서가 있고, 둘째 쪽에는 집회 스케치가 있습니다. (신수경)

집회 스케치는 지난 주 집회의 분위기와 선포되었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교와 관련된 글과 탐방들의 소필과 칼럼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배성근)

주보 내용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여러 아이와 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한 한 단 한 단의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 순순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준) 각 지체들의 창작 릴레이가 있는데, 참으로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

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노성연, 교사)

편집부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있다면?

예전에는 알람의 수단이 주보뿐이어서 주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여러 영상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주보의 역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대학부 지체들이 주보의 순서만 보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학부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대학 부 안의 지체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전하기에 열심이 만들고 있습니다. (신수경)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주 짧은 시간 안에 주보를 만들고자 하는 지체들이지만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주보

의 본질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노성연)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길이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보를 만들면서 내 믿음으로 갈라져 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 그래서 봉사를 하기 전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성근)

어떤 방향이 아니라 보시기에 옳은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봉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져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네요. (김 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도전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스케치 원고를 쓰면서부터 말씀과 찬송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수경)

여호와와 사랑을 받은 어디야의 지체들은 소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대학부 지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만이 아닌 대학부 전체와 함께 나누기를... 이 소망대로 어디야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데 더욱 전심전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집실)

다음주 일 찬송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에드워드 호퍼(Rev. Edward Hopper, 1815-1888) 목사가 미국 뉴욕항의 '바다와 육지 교회(Church of Sea and Land)'에서 시무하며 그 교회에 많이 나오던 선원들을 위하여 작사하여 절제 많은 사상이 찬송하게 되었다.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확실한 신앙이 필요했다. 그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원들을 위해서 더욱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찬양을 작사했고 작곡은 1872년 존 에드가 골드(John Edgar Gould, 1822-1875)가 담당했다.

1절은 망명인 대해 한 편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인도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우리 인생도 '재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적은 배와 같다. '죽음'이란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나날만 되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삼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2절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생의 항해 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찬양한다. 3절은 인생의 망명대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 그러면 아이와 같이 아주 어리고 연약하기에 끝까지 항해를 마치고도 버림.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와 주심을 간구하여 찬양한다. 마치 폭랑 속의 제자들을처럼 주주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의 도와 주심을 구할 때 우리는 바른 항해 길을 갈 수 있다.

4절은 시편 37면 5절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알리고 저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고"라고 말씀하신다. 믿지 심히 솔고도 의지할 곳 없이 다니며, 그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찬양한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순례자들이다. 이 순례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며 우리의 보호자이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자.

(찬양위원회)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66	박재우	19	중동2부	이연희(7)	2393	김기범	19	사남부	김성우(4)
2367	기도순	10	대학부	박소현(14)	2394	고남봉	16	청년2부	한금희(16)
2368	정다영	19	대학부	백지연(10)	2395	홍혜진	19	대학부	박재경(10)
2369	백신영	19	청년1부	백영재(1)	2396	장종현	18	청년2부	김영희(7)
2370	김덕순	15	청년2부	이동진(15)	2397	이옥재	19	청년1부	김경희(1)
2371	조성빈	19	대학부	이혜성(19)	2398	김 진	19	고등부	최정미(19)
2372	모진원	19	청년1부	이혜성(19)	2399	미 가	19	외선부	주비아(미)(19)
2373	양미은	9	청년1부	유성희(8)	2400	유재하	19	외선부	김재미(14)
2374	이연수	19	중동3부	최지우(5)	2401	전보성	19	외선부	박영술(19)
2375	이복희	1	청년1부	이계연(2)	2402	구 동	19	외선부	송동훈(10)
2376	신현식	4	청년2부	윤성재(7)	2403	고기태	19	외선부	박영술(19)
2377	김진애	10	청년1부	이연희(10)	2404	고 평	19	외선부	박영술(19)
2378	송민숙	4	청년2부	서갑석(4)	2405	바트르데	19	외선부	바트르데(19)
2379	서용환	4	청년1부	서갑석(4)	2406	안진채	19	외선부	설진희(3)
2380	윤환식	1	청년1부	최용현(1)	2407	공크바트	19	외선부	지광(19)
2381	이홍운	2	사남부	전현진(5)	2408	우루무코	19	외선부	배지미(11)
2382	박성영	9	청년2부	박성준(9)	2409	신미리	19	외선부	최지미(12)
2383	박재현	9	청년2부	박성준(9)	2410	외선부	19	외선부	한정훈(7)
2384	조용복	9	청년2부	김기태(15)	2411	나진희	19	외선부	김우준(5)
2385	안보결	8	청년2부	조준서(17)	2412	박지연	19	대학부	백미옥(1)
2386	유숙자	13	청년3부	이광현(12)	2413	조민정	19	청년1부	김현숙(12)
2387	조미숙	19	청년1부	전순옥(1)	2414	이민규	19	중동2부	한성원(7)
2388	송지혜	19	고등부	이형숙(14)	2415	박한술	19	중동2부	한성원(7)
2389	박근원	19	사남부	19	2416	정희태	11	청년1부	정은희(11)
2390	이남경	19	사남부	한성원(19)	2417	신진희	19	대학부	지호현(11)
2391	박미정	19	사남부	김수경(4)	2418	이옥리	11	청년3부	박윤숙(8)
2392	김종원	19	사남부	김성우(4)	2419	홍보라	19	청년1부	김민애(12)

※ 출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성서기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기당회
일시: 10월(수)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8월 인접사 릴레이(지회별)
일시: 7월(노는), 1500
장소: 1지회(교육관 501호)
2지회(교육관 507호)
3지회(영아부실)
4지회(교육관 508호)

3. 권사회 2지회 월례회
일시: 10월(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 세

1. 이상애 성도 (박병철 집사의 모친,
순수기 집사의 시모, 16교구 안산3
구) / 7월 31일 별세, 2일 장례
2. 하계순 성도 (사상기 성도 모친, 3교
구, 대치3구역) / 3일 별세, 5일 장례

교회직원 모집

- 1.모집 부문 경비처 (익관 명)
- 2.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이하)
- 3.제출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본, 당회참조서 (타교인)
-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02-552-8200(※403)

2005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4일 (다음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종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교론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식 목사)	교육관 304호		
8월 2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원택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자 (안지현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체 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8/8(월)	8/9(화)	8/10(수)	8/11(목)	8/12(금)	8/13(토)	8/14(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창수/정선현	김성훈/박승길	최정규/안성열	윤승일/박종현	정중순/박문태	김준희/김영순	김동욱/김정자

예배담당 안내 (8/10-8/14)

날짜	예배	찬 양	시 기 도	설 교
8/10	수요 I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호산나 찬양대)	류병철	김영숙
8/10	수요 II	네가 젊게 되시는 예수 (실로암 찬양대)	이국근	원용철
8/12	금요집회	2교구/바이블인 김해옥/소르노송 윤지영	이정준	김성관 목사
8/14	주일 I	(예배 전 찬양)	김정훈	정선현
8/14	주일 II	주님에게 맡기라 권리의 죄와 / 열로 노복함(영아부별 찬양대 솔로리스트)	안지현	윤석민
8/14	주일 III	주 예수 내로 밖에 / 비올라 김혜진(합창부 아코스티카)	정원민	박철구
8/14	주일 IV	그리스 하나님의 사랑 / 태너 조영민(아련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영숙	김정길
8/14	주일 V	내 주의 보혈은 죄 / 버리노 오로관(버릴 찬양대 솔로리스트)	양태웅	김정길
8/14	주일찬양	합창부/중앙단/아련 찬양대	이종대	이인광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2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회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찬양	오후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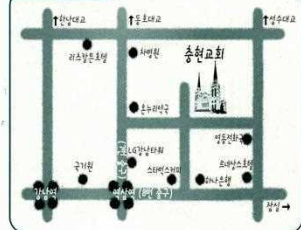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담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시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타 악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제사각양양부	오후 12:15	베 다 니 홀
중환이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원복지관
국내대외연교부	오전 11:00	아 뱌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8월 충현 기도의 창

-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권함을 주시니
- 2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발관한
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니
- 4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
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
록 은혜를 주시니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원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함 전으로 함께 지어지
가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
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다
하소서.
-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기 는 본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정길 2교구 의문신교부	김준호 교구장 의문신교부	노광현 교구장 의문신교부	오진국 의문신교부	이병학 의문신교부
알렉산 의문신교부	이 훈 의문신교부	남진우 의문신교부	김영길 의문신교부	김종구 의문신교부
최무길 제1교구	이창호 제1교구	차진득 제1교구	김갑남 제1교구	이종식 제1교구
안종욱 제1교구	임무현 제1교구	이갑재 제1교구	전용홍 제1교구	전종필 제1교구
이정우 제1교구	전단우 제1교구	김영수 제1교구	김현기 제1교구	김규형 제1교구
원용철 제1교구	이형수 제1교구	안도현 제1교구	황신만 제1교구	김구형 제1교구
최우덕 제1교구	이계인 제1교구	이대식 제1교구	김태두 제1교구	김태두 제1교구
박용국 제1교구	전만복 제1교구	배준식 제1교구	김영달 제1교구	김영달 제1교구
이성호 제1교구	최지우 제1교구	노영환 제1교구	박철구 제1교구	정정길 제1교구
신상수 제1교구	고재호 제1교구	강정형 제1교구	김영은 제1교구	이달용 제1교구
강정현 제1교구	김승민 제1교구	윤석민 제1교구	정선현 제1교구	정선현 제1교구
안석현 제1교구	김진국 제1교구	김종순 제1교구	임창식 제1교구	임창식 제1교구
김정현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전재하 제1교구

■ 부목사

이종대 신교부	정현민 신교부	박인기 신교부	류병철 신교부	김영훈 신교부
이국근 신교부	안창덕 신교부	나영원 신교부	정진호 신교부	김용덕 신교부
고광환 신교부	위진강 신교부	김익환 신교부	장 훈 신교부	이원덕 신교부
이희식 신교부	최종철 신교부	하종철 신교부	안지현 신교부	정중순 신교부
양태웅 신교부	이성진 신교부	조규호 신교부	최정규 신교부	이제영 신교부
이영준 신교부	이정훈 신교부	김준호 신교부	윤승일 신교부	황진섭 신교부
정정길 신교부	이정훈 신교부	김태식 신교부	김성관 신교부	김성관 신교부

■ 어전도사

신동우 신교부	윤인숙 신교부	한영원 신교부	김진국 신교부	홍순애 신교부
이우주 신교부	김자식 신교부	안종현 신교부	김정원 신교부	조우자 신교부
김정길 신교부	최종철 신교부	전용홍 신교부	김영은 신교부	김정자 신교부
이성경 신교부	김정희 신교부	이복순 신교부	류진희 신교부	한성민 신교부
임태두 신교부	강영미 신교부	이복순 신교부	이복순 신교부	이복순 신교부

■ 전담감독 강인규

■ 전담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담목장자 김소현

■ 전 교 사 송요한